

44 전남농업정보

2015. 7. 27. ~ 8. 2. 주간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애호박·토마토 재배 동향 및 축산물과채 가격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해남 햇꿀고구마 수확 시작 '군침 절로'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흰우유, 중국 수출 본격 재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고당도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 육성

정책동향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강화

해외 농업정보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가격, 기후개선 및 그리스 정세 불안으로 하락

요약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4~12mm)보다 적음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애호박, 7~9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전망
- 일반토마토, 7~9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축산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지육kg 전망
- 돼지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4,900~5,200원으로 전망

▶ 과 채 : 오이, 고추

- 오이 : 취청오이 7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2천~1만 5천원 전망
- 고추 : 청양계풋고추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3만~3만 5천원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무등일보, 광남일보)

- ▶ 해남 햇꿀고구마 수확 시작 '군침 절로'
- ▶ 완도군, 해풍 맞은 농작물 우수성 입증 나서
- ▶ 고흥군 열대과수 애플망고의 달콤한 유혹
- ▶ 무안 단호박 농가 효자...3000t 수출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흰우유, 중국 수출 본격 재개
- ▶ aT, 대일수출지원센터 개설...농식품 업체 검역·통관 지원
- ▶ 농식품 수출 77억달러 달성 빨간불...정부 대책은 '글썸'
- ▶ 식품기업, 중국 내륙지역 및 할랄시장 진출 확대 박차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고당도 검정꽃고추 신품종 '자남초 2' 육성
- ▶ 딸기 육묘, 네덜란드 기술 배운다!
- ▶ 신품종 슈퍼도라지 명품화 추진한다
- ▶ 도 농기원, '부드러운 쌀빵' 제조방법 기술 이전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강화
- ▶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휴가철 할인혜택 가득
-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 농식품 분야 국고보조 내년 폐지...사업 위축 우려
- ▶ 2015 우수후계농업경영인 307명 선정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가격, 기후개선 및 그리스 정세 불안으로 하락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인 수출수요 부진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서부 옥수수 지대 기대 수확량 및 중서부 지역 우호 날씨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3거래일 연속마감에서 소폭 상승
 - 대두 선물가격은 6월말 이래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최저가격기록 후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유럽 왕족이 먹었던 아로니아 재배...귀농 3년만에 희망가
- ▶ 영암 석사 '귀농 청년' 가능성 주스 생산 화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신청

- 신청기간 : 7. 22. ~ 8. 7.(15일간)
- 신청대상 :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조사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
- 사업량/사업비 : 17천롤/1,667백만원(기금 500, 자담 1,167)
- 지원단가 : 롤당 93천원(보조 30, 자담 63)
- 지원내용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볍짚·보리짚 제조용)
- 공급기관 : 농·축협(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비닐 인수)

▶ '15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신청 접수

- 기 간 : '15. 7. 23. ~ 8. 27.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품종 : 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등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 : 9. 11. ~ 10. 10.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7. 27.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27)	전주 (7/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신작량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5,707	↓ 2.1	↓ 29.0
	고구마(밤)	10kg	33,800	34,200	37,400	30,400	33,453	↑ 11.2	↑ 1.0
	감자(수미)	20kg	25,600	26,600	28,800	23,000	22,987	↑ 11.3	↑ 11.4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80	630	700	650	769	↓ 10.8	↓ 24.6
	양배추	10kg	6,600	6,900	7,875	5,300	5,733	↑ 24.5	↑ 15.1
	오이(다다기계통)	15kg	23,667	32,666	17,167	22,556	25,581	↑ 4.9	↓ 7.5
	애호박	8kg	15,000	14,000	13,350	9,650	15,373	↑ 55.4	↓ 2.4
	토마토	10kg	19,600	22,200	17,000	13,650	21,190	↑ 43.6	↓ 7.5
	무(봄)	1kg	16,400	18,000	13,550	10,600	15,387	↑ 54.7	↑ 6.6
	당근	20kg	31,000	31,000	30,800	35,350	33,290	↓ 12.3	↓ 6.9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80,000	784,833	↑ 20.6	↑ 4.5
	풋고추	10kg	28,000	36,000	37,000	34,900	38,030	↓ 19.8	↓ 26.4
	마늘(난지)	10kg	47,600	48,400	47,250	34,300	37,867	↑ 38.8	↑ 25.7
	양파	1kg	24,600	23,000	20,400	9,300	15,024	↑ 164.5	↑ 63.7
	대파	1kg	1,990	2,180	2,335	1,025	1,373	↑ 94.1	↑ 44.9
	파프리카	5kg	12,200	12,600	15,250	15,700	19,847	↓ 22.3	↓ 38.5
	방울토마토	5kg	12,200	12,400	12,300	7,650	12,743	↑ 59.5	↓ 4.3
	수박	1개	14,200	13,600	13,500	14,500	15,050	↓ 2.1	↓ 5.6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6,800	67,800	92,000	81,600	↓ 27.4	↓ 18.1
	배(신고)	15kg	39,600	39,600	39,600	83,000	64,867	↓ 52.3	↓ 39.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27)	전주 (7/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53,667	-	↓ 3.9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0,000	353,267	↓ 4.5	↑ 18.9
	새송이버섯	2kg	7,600	7,800	8,600	7,700	7,695	↓ 1.3	↓ 1.2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074	6,976	6,861	6,426	6,013	↑ 10.1	↑ 17.6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05	2,296	2,133	2,177	1,984	↑ 5.9	↑ 16.2
	닭고기	1kg	4,929	5,119	5,756	4,945	5,799	↓ 0.3	↓ 15.0
	계란(특란)	10개	5,793	5,795	5,859	6,019	5,312	↓ 3.8	↑ 9.1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9	2,308	-	↑ 10.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7. 27.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157 천원	5,199 천원	4,355 천원	↓ 0.8	↑ 18.4
	거세	6,696 "	6,535 "	5,394 "	↑ 2.5	↑ 24.1
송아지 (6~7월)	암	2,796 "	2,687 "	2,038 "	↑ 4.1	↑ 37.2
	수	3,160 "	3,198 "	2,757 "	↓ 1.2	↑ 14.6
육우(600Kg)		3,126 "	3,339 "	2,817 "	↓ 6.4	↑ 11
젖소수송아지(7일령)		267 "	250 "	17 "	↑ 6.8	↑ 1470.6
돼지(110kg)		475 "	474 "	394 "	↑ 0.2	↑ 20.6
육계(원/kg)		1,444 원	1,471 원	1,808 원	↓ 1.8	↓ 20.1
계란(원/특란10개)		1,217 원	1,232 원	1,390 원	↓ 1.2	↓ 12.4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500 원	-	↓ 33.3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7.7	26.9	0.8	30.9	30.9	-0.1	24.6	24.0	-0.3	4.0
7. 30.(목)	27.5	26.8	0.7	30	30.7	-0.7	25	23.9	-1.1	3.5
7. 31.(금)	27.5	26.9	0.6	30	30.8	-0.8	25	24	-1	4.1
8. 01.(토)	28	27	1	31	31	0	25	24	-1	3.7
8. 02.(일)	28.5	26.9	1.6	32	30.9	1.1	25	24	1	4.3
8. 03.(월)	27.5	26.9	0.6	31	31	0	24	24	0	4
8. 04.(화)	27.5	26.9	0.6	31	31	0	24	23.9	0.1	4
8. 05.(수)	27.5	26.8	0.7	31	31	0	24	23.9	0.1	4.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애호박·토마토 재배 동향

□ 애호박, 7~9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전망

- 7~8월 정식면적은 주산지에서의 면적 변화가 크지 않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 광양에서는 반축성 작형의 고온 피해로 출하를 일찍 종료한 후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가 일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남 진주에서는 10월 정식을 9월로 일부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 의령에서는 주키니 호박 농가에서 일부 애호박으로 작목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반토마토, 7~9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 7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북 고령과 경남 창녕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 등으로 전환할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8~9월 정식면적도 작년보다 각각 1%,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사천, 창녕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축 산 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지육kg 전망

○ (돼 지)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 당 4,900~5,200원으로 전망

과 채 : 오이, 고추

○ (오 이)

- 취청오이 7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2천~1만 5천원 전망

○ (고 추)

- 청양계꽃고추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3만~3만 5천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해남 햇꿀고구마 수확 시작 '군침 절로'

- 1천363ha서 2만톤 생산 250억여원 소득 예상 -

- 해남 햇고구마가 첫 수확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 19일 해남군과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보름가량 빠른 고구마 수확은 해남1호인 꿀고구마로 지난 4월11일 식재돼 100일이 채 못 됐다.
- 현재 조기 수확되고 있는 꿀고구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무병묘로, 조기 수확으로 수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조기출하에 따른 높은 가격대 형성으로 평년 소득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해남지역 고구마는 꿀고구마를 중심으로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가 모두 1천363ha에서 2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 650여 농가에서 25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격도 7월 중 조기출하용은 상품의 경우 10kg 1박스에 4만5천원에 전량 수도권으로 출하되는 등 지난해보다 1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고구마는 8월까지 여름철 판매용으로 본격 수확되며, 저장용은 10월까지 수확된다.
- 한편 해남군은 고구마 주산단지로 전국 생산량의 8%,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 완도군, 해풍 맞은 농작물 우수성 입증 나서

-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브랜드가치 향상 기대 -

- 완도군이 해풍(海風)의 농업적 이용가치를 입증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해안지역 농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자연 그대로' 실천을 위해 해풍 맞은 농작물의 연구를 착수하는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 16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해풍 농업의 이용가치 구명연구 보고결과 따라 농업인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작물의 과실과 엽 분석을 통해 해풍이 미치는 영향 및 기능성 우위지표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박용서 교수팀은 8개월간의 연구 기간 동안 해풍이 농산물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구명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실제로 완도지역에서 재배한 방울토마토와 해변포도, 부지화, 비파 등의 과일과 채소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경매되고 있다.
- 이를 위해 군은 해풍 맞은 농작물의 연구결과에 따라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브랜드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위윤열 소장은 "적당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아 자란 해안가의 농작물은 당도나 경도가 높고,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이미 농가들 사이에는 정설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청정바다 완도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마련해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출처 : 무등일보

■ 고흥군 열대과수 애플망고의 달콤한 유혹

- 고흥군(군수 박병중)은 고급 열대 과일인 애플망고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군은 애플망고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1년 5월에 농업기술센터 내 “특화작물연구단지”에서 3년생 애플망고 묘목을 정식하고 우리 기후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 이에 최근 애플망고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얻게 되었다.
- 고흥은 물 빠짐이 좋은 토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일조량으로 인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애플망고 생산이 가능하며,
- 특히, 고흥산 애플망고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 출하 1~2주 전부터 물을 주지 않고 완숙시킨 후 수확하기 때문에 긴 운송 기간을 감안해 60~70%만 익어도 수확하는 수입산 애플망고보다 신선하고 맛이 우수하다.
- 애플망고는 사과처럼 과일 껍질이 밍그스름해서 애플망고라고 불리며, 당도가 높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과일로 알려졌다.
- 100g당 68kcal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며, 비타민 A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변비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강 과일로도 유명하다.
- 또한, 현재 대형마트에서 무게 300g 안팎의 1개당 태국산 2,900원, 대만산 4,9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고소득 작물로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 고흥군은 앞으로 대량생산체계 구축, 판로 확보, 수확시기의 다변화 등을 통해 애플망고를 비롯한 열대과수를 고급브랜드화 시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닷컴

■ 무안 단호박 농가 효자...3000t 수출

- 30억원 소득 올라...군 2기작 재배기술 보급 주력 -

- 무안 단호박 3000t이 일본, 대만, 홍콩 등에 수출됐다.
- 무안군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한 단호박 4000여t을 지난달부터 수확, 90%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 3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 단호박은 녹말과 무기염류가 풍부하고 비타민B,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웰빙 건강식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량 섭취에도 포만감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설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무안군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 군은 앞으로 일반적인 1기작 재배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연중 신선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단경기 2기작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이상일 무안군 친환경농업담당은 "최고의 단호박 재배단지로 육성, 수출판로를 확대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광남일보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흰우유, 중국 수출 본격 재개

- 7월 21일 매일유업 첫 중국 수출 선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은 흰우유 수출 재개를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품목이 중국 정부에 등록*됨에 따라 성사되었다.

* 중국 정부는 '14.5.1일부터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 첫 수출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한 흰우유(살균유, 5톤)로 7월 21일 수출되어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중국 산둥성, 상하이 및 북경 등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참고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5월 1일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품목) 등록제」 시행으로 국내 흰우유(살균유)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된 이래 1년 2개월 만에 수출이 재개된 것이다.

- 그간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민관협력(정부 3.0)을 통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가공장 시설 정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한·중 실무협의회 개최(4회), 한중 국장급회담 등 양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 촉구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 또한, 수출 업체의 시설 정비, 유통기한 검증 실험 및 중국 조사단의 현장점검 대응 등 수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 한국유가공협회 및 수출 기업들과 함께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7월 중 국내 관계기관 및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

- 유제품 중국 수출 시 거쳐야 할 우리 정부의 검증(검역·검사) 절차를 설명하고 중국의 관련 규정 등을 수출업체 등에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

* 농식품부·식약처·한국유가공협회·수출기업(8개사)로 구성된 “지침 마련 T/F” 구성·운영('15.3월)

- 지침 주요내용

- ① 개요 ② 수출기업 중국정부 등록절차 ③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④ 우리 정부의 사후관리 ⑤ 참고 자료(중국의 유제품 수입관련 규정 등)

-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T, 대일수출지원센터 개설...농식품 업체 검역·통관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대일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검역 및 통관업무 지원에 나섰다.

- aT 도쿄지사에 따르면 대일수출지원센터는 지속되는 엔저와 한·

일 양국 간의 정치적인 관계로 일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품업체들의 원활한 대일 수출을 돕기 위해 최근 개설됐다. 지원센터는 대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유망상품 개발과 품질 관리, 법률 상담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특히 대일 수출업체에게 통관 및 검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정부와 즉시 협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검역트러블신속대응팀’을 가동한다. 또한 일본의 식품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우리 가공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등록시켜, 통관 및 검역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대일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aT 오사카지사는 지난 15일 오사카 닛코호텔에서 이온(AEON)·니혼 액세스(Nippon Access) 등 간사이 지역 핵심 유통업체 및 벤더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상담회 ‘Taste of K-Food in Osaka 2015’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인삼과 삼계탕 등 주력품목 외에도 생들기름과 유자분말을 비롯한 유망상품이 대거 출전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식품 수출 77억달러 달성 빨간불...정부 대책은 '글쎄'

- 정부의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1월~6월까지 상반기 수출실적 집계 결과 30억7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30억2370만 달러)보다 오히려 0.6%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4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이 61억827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최소 20%

이상 실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일본·아세안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주력 시장의 실적 감소와 파프리카·김치를 비롯한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의 하락세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농식품 수출실적을 분석해보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점검해 본다.

- ▲ 주요 수출국 실적 감소=환율 약세와 메르스 확산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국인 일본·홍콩·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몇 해째 지속되고 있는 엔화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상반기 6억5700만 달러 보다 9.6%가 줄어든 5억9400만 달러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부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실적이다.
- 수출 성장세에 있던 아세안 지역은 수출 물량은 늘었으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환율 약세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새털’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미쳤다. 새털 수출 감소는 현지 인건비 증가 및 글로벌 의류업체들의 공장 이전 때문으로, 당분간 수출실적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콩의 경우 불과 몇 주 전까지 우리나라를 긴장상태에 놓이게 했던 메르스가 우리 농식품 이미지에 영향을 줘 수출실적 하락(1억8800만 달러 → 1억7300만 달러)으로 이어졌다.
- 이 같은 어려움에도 유럽·중국·미국의 수출 확대가 완충작용을 해줘 실적이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유럽은 커피조제품의 그리스 수출 증가와 한류의 영향으로 김치·새송이 버섯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9% 성장한 1억81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 중국은 현지 유아용품 시장 확대와 맞물려 조제분유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해 2014년 상반기에 비해 11.5%

늘어난 5억900만 달러의 성적을 거뒀으며, 미국은 현지인 시장 개척을 통한 인삼류·음료 수출 확대로 작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2억95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지속적인 수출 부진, 신선농산물=신선농산물은 지난해부터 오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도 일본 엔화 하락의 영향이 크다. 일본은 우리 신선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 이에 신선 토마토(10.4%↑)와 새송이버섯(5.8%↑), 밤(5.7%↑) 등의 선전에도 일본 수출 비중이 큰 장미(52.9%↓)·김치(14.9%↓)·파프리카(10%↓)의 수출액 감소가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수출부의 문용현 차장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일본 상황 때문에 수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며 “당조고추와 같은 기능성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새로운 신선농산물 수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가공식품의 경우 새로운 품목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들기름으로, 일본에서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의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소비가 급증했으며, 우리 들기름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930만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4448% 증가했다.

○ 가공식품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중국계 마켓 등으로 판매가 늘어난 삼계탕(527만 달러, 77.4%↑)과 중화권과 중동에서 판매 호조세에 있는 조제분유(5430만 달러, 59.1%↑)도 좋은 반응을 얻은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 한편, 수산물 수출 또한 주력시장인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7% 감소한 9억58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고등어와 전복·참치·미역 등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의 경우 일본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60.6% 늘어난 7300만 달러의 수출 성적을 거뒀다.

▲비상 지원체계 구축 나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 비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산림청·aT·농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테스크포스(TF)’ 운영. 유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매달 수출 현장에서 국가별·품목별 수출실적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장·단기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며 “수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현행 3~4%)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또한 해외 박람회 참가, 케이푸드페어 개최 등 기존에 진행했던 홍보·판촉을 보다 강화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수출에 피해를 입었던 일본 및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판촉과 안전성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 이밖에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등 중국 수출 활성화 정책 및 할랄 식품 수출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반응은=수출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보완대책에 대해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메르스에 따른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성 홍보에는 공감했으나, 업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류비 절감과 엔저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농식품 수출 77억 달러 달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A 수출업체 관계자는 “엔저가 농식품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인 만큼, 대일 수출비중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B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유망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할인 노선을 확대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저년근 인삼) 등 핵심품목들의 대중국 수출·검역 통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C 수출업체 관계자는 “가뭄과 화상병 영향으로 하반기에 수확이 집중되는 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77억 수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이와 관련 유재형 사무관은 “엔저 피해와 관련해 환변동보험 가입비를 최대 95%까지 지원해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올 하반기 중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지역을 중동 등 할랄 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식품기업, 중국 내륙지역 및 할랄시장 진출 확대 박차

-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 식품기업수출협의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이상철 대상FNF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중국 내륙지역과 할랄시장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식품기업수출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청담동 프리아호텔에서

농심과 롯데칠성음료, 신송식품 등 주요 회원사 및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제3대 회장인 명형섭 대상 사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회원사들은 이상철 대상FNF 사장을 제 4대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6년 차기회장 선출 시까지다.

- 이상철 신임회장은 “농식품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33개 회원사 간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협의회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aT와 협력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륙지역과 중동,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촉전 개최 등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고당도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 육성

- 전남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새로운 고품질의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를 지난해에 육성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에 육성한 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는 검정풋고추 중간모본에 파프리카의 피를 넣은 풋고추로 검정색 과피색을 가지며 파프리카처럼 단맛이 강하고(352mg/g) 아삭함이 매우 좋다.
- 또한 매운맛이 없고 수분함량이 91%로 매우 높아 아삭한 맛과 청량감이 우수해 식탁에서 채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 신품종 '자남초 2'는 풋고추 길이가 일반 파프리카보다 길고 과폭이 청양고추보다 2배정도 통통하며 속살 두께가 두꺼운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량성이 청양고추보다 27% 높다.
- 풋고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재배농가 측면에서 보면 수량이 높아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풋고추 무게가 청양고추보다 4.5배 무거워 수확 노력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가진다.
- 농업기술원 측은 최근 육종회사에서 육성된 검정고추는 거의 F1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할 때마다 종자값이 10a당 100만 원정도 소요되지만, '자남초 2'는 고정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예연구소 이아성 연구사는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블랙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는데 검정풋고추 신품종 '자남초 2'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고, 풋고추 재배농가에는 소득 증대와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딸기 육묘, 네덜란드 기술 배운다!

-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 함양 산청 진주 등 순회 실시 -

- 딸기는 경남의 수출전략 작목이면서 전국 재배면적의 35%가 넘는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과채류이다. 경남에서 생산되는 딸기 품질은 국내외 시장에서 이미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품종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재배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이번 한주동안 도내 딸기주산단지를 순회하며 딸기 육묘관리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의 강사는 아드리 스트리에프(네덜란드, 55세, Adri Streef)씨로 네덜란드 시설원예 전문 교육기관인 DLV Plant에서 원예작물팀장을 맡고 있으며, 30년 경력의 원예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 오늘(7.21.) 함양군을 시작으로 22일은 산청군, 23일에는 진주시 관내 딸기 재배단지에서 우량묘 생산기술과 천적 도입 육묘 방법, 병해충 관리방법 등 현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은 도농업기술원 ATEC에서 도내 딸기 재배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식 딸기 육묘방법과 우량묘 생산기술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 일정동안 해외 강사 통역은 도농업기술원 임채신 박사와 (주)그린코프 이강모 이사가 각각 2일씩 맡아 원활한 교육내용 전달로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게 된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신품종 슈퍼도라지 명품화 추진한다

- 충북농업기술원, 으뜸, 으뜸백도라지 종자생산과 가공품 개발 적극 지원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자체 육성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으뜸도라지와 으뜸백도라지(이하 슈퍼도라지)에 대한 명품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슈퍼도라지는 도 농업기술원이 1996년부터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품종으로 보라색꽃과 흰꽃이 같이 피는 으뜸도라지(국립종자원 제1796호)와 흰꽃 만 피는 으뜸백도라지(국립종자원 제2310호)가 있다.
- 재래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파종 후 2년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재배한 재래종 보다 30%이상 증수되고, 품질도 좋아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을 함께 올릴 수 있는 품종이다.
- 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신품종 슈퍼도라지의 원활한 공급과 확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쉽게 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4년 도내 종묘업체 및 제천시, 괴산군과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가을부터는 시중 종묘상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슈퍼도라지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특허권과 동일한 지식재산

권으로 충청북도에 속해 있으며, 통상실시 계약을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종자를 생산 판매할 경우 특허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도 농업기술원은 슈퍼도라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확보를 위해 농업인들의 가공품 개발과 판매 지원에도 나서는 한편, 농가가 희망할 경우 기술원이 운영 중인 충청북도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http://www.cbfarms.or.kr>) 와 농가 모바일허브사이트 잇다팜 (<http://m.cbfarms.or.kr>)에 등록하여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이정관 박사는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슈퍼도라지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선택받는 신품종 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도 농기원, ‘부드러운 쌀빵’제조방법 기술 이전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개발한 ‘부드러운 쌀빵 제조 기술’을 산업체에 기술 이전한다.
- 도 농기원은 21일 농기원에서 하얀풍차제과점, 인네이처와 기술이전 협약을 맺었다. 하얀풍차제과점은 수원의 발효종빵 전문제과점이며, 인네이처는 제과제빵을 편의점과 급식으로 납품하는 순천 업체이다.
-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노화지연 효과가 우수한 쌀 발효액종, 쌀빵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농기원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연구해 특허출원한 기술이다.

- 이 기술은 발효기술을 적용해 밀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쌀의 가공성을 높여 기존 쌀빵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다.
- 쌀가루는 글루텐이 거의 없어 끈기나 점성이 떨어지고 수분함량이 적어 빵을 만들기 적합하지 않다. 또한 노화속도가 빨라 빵 부피가 작고 딱딱하며 쌀 특유의 향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쌀빵에 이용되는 초미세분말은 일반분쇄 쌀가루보다 제조원가도 1kg 당 2천~3천 원 정도 높다. 이 기술은 쌀 발효액종을 이용해 일반 쌀빵보다 노화속도를 늦추고 풍미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글루텐 등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쌀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초미세 쌀가루 대신 일반분쇄 쌀가루를 이용할 수 있어 제조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 주온영 하안풍차제과점 대표는 “경기도 특산물인 쌀을 이용한 쌀빵을 지역 대표 빵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원일 인네이처 대표는 “누구나 쌀빵을 쉽게 사먹을 수 있도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쌀빵 제조기술 산업체 이전으로 대량유통이 가능해졌다.”라며 “쌀의 부가가치 향상과 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강화

- 전남축산위생사업소, 닭·오리농가 소득 철저 등 차단방역 당부 -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AI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15일 해제됨에 따라 평소 방역체제로 전환됐지만 가금 사육농장 상시 예찰검사 강화 등 연중 상시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특히 지난해의 경우 7월 말인 여름철에도 3건이 발생하는 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가금 사육농장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도축장 출하 전에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AI 조기 검색 및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연중 상시검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올해 5개 시군에서 총 27건의 AI를 진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 검사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
- 올해 초 무안 AI 의심신고 이후 예방적 살처분 한 16개 농장 중 8 곳에서 AI가 검출됐고, AI 방역지역(발생 반경 10km) 내 248개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된(병아리 분양·차량 방문 등) 292개 농장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5개 농장에서 AI를 진단했다.
- 또한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4월부터 3단계 검사체계(입식 전·사육 중 폐사체·출하 전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강화하고, 종오리 농장은 3단계 검사와 함께 일제검사를 2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1천 947개 농장을 검사해 14개 농장에서 AI를 검출했다.

-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월에서 5월까지의 철새 도래지 검사를 강화해 기존 6개 지역 외에 15개 지역을 추가 지정, 총 21개 지역의 야생철새 분변검사를 매월 실시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 이태욱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됐지만 오리 사육농가는 도축장 출하 전 반드시 AI 정밀검사를 해야 하므로 최소 1주일 전에 시군에 출하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시는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축사 등 축산 관련시설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휴가철 할인혜택 가득

- 8월 20일까지 51개 마을 체험상품 20% 할인 -
- 전라남도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상품 할인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름 휴가철 체험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20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과 대부분의 국내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메르스로 위축된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가족단위 체험객을 도내 체험휴양마을로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 여름 휴가철 체험상품 할인 기간 동안 체험이 가능한 도내 5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마을의 체험상품 중 체험객이 원하는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지역 우수 체험휴

- 양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농촌관광 체험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수도권 기관·단체·학교의 마을 간 자매결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체험 관광단’에는 농작물 수확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과 시골 밥상도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하루 동안 체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참가비 5천~1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농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다.
- ‘농촌관광 체험단’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으로 33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도내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여행 상품을 자율로 참여할 수 있다.
-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한 수도권 기관·단체·학교가 체험 휴양마을과 도농 교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올해 50명 이상이 마을을 재방문할 경우 선착순 10개소에 체험, 숙박, 식사 및 농·특산물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할인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휴가철 체험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7~8월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점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체험 시설물 안전점검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농촌 관광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 여름 휴가지로 깨끗한 자연에서 나는 풍성한 친환경 농산물과 훈훈한 인심이 살아 있는 전남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며 “농촌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10월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국제 농업박람회장(대규모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수확철인 10~11월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1만 원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와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 방법과, 여름 휴가철 체험 상품 할인행사 참여마을 내역은 전남농촌체험관광 누리집(www.jnfarmtou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중앙·지자체 및 유관기관, 채소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토론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5.7.17일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서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aT, 유통법인, 식품기업,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기존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 새로 도입되는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 (예시) 품목,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

- 출하안정제를 통해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기재부 협의)을 통한 농협 외 조직의 생산출하안정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수급·가격 정보 공유를 위한 수급정보 공동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또한, **변산농협, 대관령원예농협은 사례발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변산농협은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동일 품종 재배, 체계화된 유통관리, 산지마케팅 역량 확보를 통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의 92%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대관령 원예농협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조직화를 통한 수급조절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합판매 사업을 통한 판매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 정확한 관측을 통한 **재배면적 조절, 계약농가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참여 대상확대**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 생산량뿐 아니라, 품목별 소비 전망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재배면적**

조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 농가의 소득안정 및 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생산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또한 **계약 불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제한 등)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현재 농가의 계약(가격, 품위, 물량 등) 미이행 우려에 따라 김치업체 등 고정거래처에서는 농가와의 직접 계약 회피

□ **농식품부 이준원 실장**은 “채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사전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 등 자율적 수급안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생산안정제 도입과 함께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 경영체 육성,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자율 수급대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또한 **수급안정제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직불제도 확충 및 재해보험, 농업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반영한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제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8월중 마련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집행 현장 및 농업인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분야 국고보조 내년 폐지...사업 위축 우려

- 한식 세계화·농업정책자금 관리 등 10개 사업 -

- 농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을 비롯한 농업정책자금 관리 등의 농·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더욱이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와 외식산업,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등도 폐지 대상에 올라 내년도 농·식품 사업의 상당한 위축이 예상된다.
- 이는 기획재정부가 32개 부처 142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10% 폐지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즉시 폐지 65개, 단계적 폐지 75개 등 140개가 감축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43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0개(7%)가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즉시폐지 8개와 단계적 폐지 2개 등이다.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은 한식 세계화(부산박람회), 농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 농업정책자금 관리, 동물약품산업 종합지원, 외식산업 육성,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등이다. 단계적 폐지는 기능성 양잠 육성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 이들 사업 가운데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의 경우 82억원의 예산으로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 등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차질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출범한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관리자금 25억원도 폐지될 경우 농업정책자금의 원활한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문제는 농식품부가 이들 폐지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 문서가 아니라 유선상으로만 통보받아 예산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이어서 구체적인 폐지사유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폐지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는 9월 10일 국회에 일괄 제출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2015 우수후계농업경영인 307명 선정

- 경영자금 추가 지원(2억원, 1%) 으로 정예 선도농으로 육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거쳐 **201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30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 후계농 선정은 지자체 추천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최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지난해(301명) 보다 6명 증가(2%)한 307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인증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영농 기본역량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 품목별 기술전문가와 경영전문가로 이루어진 48개 인증심사팀이 신청자별로 27개 항목에 대한 현장실사 및 면접(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 주요 인증지표 : 교육이수 실적, 지역공동체 활동 정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가능성, 경영규모 및 소득의 평균대비 수준, 회계관리 적정성, 생산 관리 및 기술 적정성 등

- 금년도에 선정된 307명의 특성을 보면,

- 20대 5명(1.6%), 30대 47명(15.3%), 40대 126명(41.0%), 50대 123명(40.1%), 60대 6명(2.0%)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이 268명(87.3%), 여성이 39명(12.7%)이다.

- 경종 분야는 216명(70.36%)으로 그 중 채소가 110명으로 가장 많고, 축산 분야는 91명(29.64%)이 선정되었고 그 중 한우가 52명으로 가장 많다.

- 선정자 모두가 품목별 전국평균 경영규모 및 소득수준의 1.7배 이상으로,

- 사과와 평균 경작면적은 2.30ha, 매출액은 6천만원~1억원 수준이고, 참외의 평균 경작면적은 1.49ha, 매출액은 1억원~2억원 수준이며, 인삼의 평균 경작면적은 5.09ha, 매출액은 2억원~5억원 수준이다.

- 한우의 평균 사육마리수는 109마리, 매출액은 0.5~3억원 수준이며, 양돈의 평균 사육마리수는 2,380마리, 매출액은 0.8~28억원 수준이다.

* 품목별 평균 경영규모('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 사과 0.85ha, 시설참외 0.66ha, 인삼 1.55ha, 한우 17마리, 양돈 1,021마리

- 공익단체 및 비영리단체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공동 구매 및 출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에 필요한 생산기술, 경영관리, 시장관리(마케팅) 등 분야의 교육과정을 집중하여 수료하였다.

- **우수후계농 인증제도**는,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어느 정도 영농기반을 갖춘 농업인을 엄선하여, **사업확장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정예 선도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인증되면 **연 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 자금 지원

- (후계농)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후계농)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경영능력 제고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집합적 경영심화교육, 선도농가 지도(멘토링) 교육, 농업선진국 국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엔 축산(한우) 분야 우수후계농으로 선정된 경북 상주의 김00 (84년생)씨는 농수산대학 출신으로 2006년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다.

○ 한우 17마리로 시작, 현재는 한우 100마리 및 블랙초코베리 1,750평을 경영 중이며, 우수후계농 선정을 계기로 특용작물을 추가 재배할 예정이다.

○ 한우 상담사(컨설턴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대한 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경종(특작)분야 우수 후계농으로 선정된 전북 진안의 이00 (여, 63년생)씨는 1995년에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다.

○ 인삼 1,500평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5,000평까지 확장하였으며, 이번에 자격이 주어진 우수후계농 자금을 통해 재배면적과 가공설비 증축 등 경영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그는 생활개선회, 인삼작목반 활동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개방화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예인력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 앞으로도 매년 300명 수준의 우수후계농을 선정하여 이들이 **정예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생산기술 및 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 창업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가격, 기후개선 및 그리스 정세 불안으로 하락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의 월요일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예상보다 적은 강우에 따른 작황부진에 대한 우려완화로 하락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지난주 미국 중서부 지역의 폭우에 따른 작황부진 우려 및 USDA의 옥수수 및 대두에 대한 예상보다タイト한 공급전망으로 201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인디애나 주 A/C Trading의 지도자 Jim Gerlach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러한 기후에 대해 강우의 최악국면은 곧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리노이 주 Allendale 중개업의 최고 전략책임자 Rich Nelson도 주말 미주리 및 일리노이로부터 오하리오의 맑은 기후로 토양의 습기가 적어지고 있다고 한다.

옥수수의 9월물 시카고 선물가격은 비공식적으로는 부셸 당 16센트 하락하였으며 이전 세션에서는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였었다. 또한 대두의 8월 선물가격도 비공식적으로는 부셸당 16센트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주 6개월래 최고치에서 반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영향뿐만 아니라 USDA의 옥수수 및 대두에 대한 4주 연속 작황부진 전망 발표를 앞두고 약세가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경우는 채권자들이 제시한 긴급구제 조건에 대한 총선거에서의 반대여론으로 상품 및 자산시장에 하방압력을 더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재고시장의 약세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세계에서 두번째 경제대국이자 대두 등 원자재에 대한 최대 소비국으로서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유럽의 폭염 및 캐나다의 건조한 기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이지 않은 기후에 대한 우려로 상승압력을 받았다. 9월물 밀 선물가격은 부셸 당 4.5센트 상승한 5.95달러로 장 마감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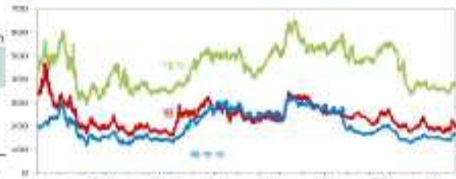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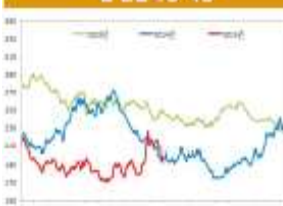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7. 22.(시카고 선물거래소)

염가매수로 대두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 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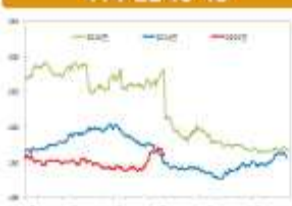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5.7.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6)	2014 평균
일	192.75	▼1.5%	191	216
목수주	159.99	▲0.3%	143	164
대우	374.27	▲1.1%	355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곡물연결밀: 55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1월,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장상가액임.

**월 신문사경시할**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인 수출수요 부진으로 6개월 연속 하락 이연계약으로 오는 손실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을 확요일 이집트 수출국측(Generic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y GASC)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 35만톤 수입했고, 미국산 밀은 입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함.

옥수수 실크시장 세팅



미국산 옥수수는 선물가격은 서부 옥수수 지대 기대 수확량 및 중서부 지역 우호 날씨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3개월의 연속마감에서 소폭상승함. 미국농무부(USDA)는 미국산 옥수수 69%의 직할등급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작황상태도 안정세에 들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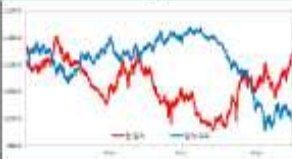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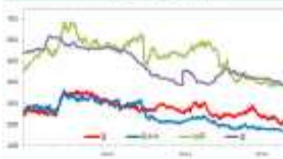
특두 선봉시랑 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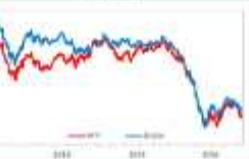
미국과 모두 수출가격은 6월말 이후 2개월간 연속 하락으로 최저가격기록 후의 추세가 물가의 상승에 마칠할 세계 최고 모두 수입국인 중국은 6월 수입이 월간 두 번째로 높은 수입을 기록하였고, 남미의 브라질과 칠레의 수입은 브라질과 칠레의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전할.

관련동향 임주요 곡물 수출가격 하락
임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약세 및 이윤유제고임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제품 수송 가격 (FOB)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9	▼3.5%	환율	원/달러	1151.9	▲0.5%		
	옥수수	182	▼3.2%		달러/유로	1.0832	-		
	대두	400	▼0.7%		WTI	50.36	▲0.4%		
	쌀	399	-		Dubai	54.68	▼1.3%		
				국제유가					

* 1) SWUS SWW Golf), * 2) US STC Golf), * 3) US Golf), * 4) Thailand 100* Grande R., WTI(월봉), Dubai(현물)
 2) 미국산유(15.7.20)(중동-미국), 15.7.21(한화), 15.7.22(한화)의 미주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한국산유, 한국석유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고소득 농업사례

■ 유럽 왕족이 먹었던 아로니아 재배...귀농 3년만에 희망가

- 여성·실버고객 위한 프리미엄급 아로초'제품 개발 -

○ 광주에서 장성 남면방향으로 자동차로 10분 정도 달리면 고도가 낮은 산지와 평야를 지나 마치 둔덕처럼 가운데가 솟아 불룩하게 언덕이 진 자풍마을이 나타난다.

○ 이곳에 ‘아로니아’로 귀농에 성공한 한상필(30) 대표가 운영하는 ‘아로니아인 농장’이 있다.

○ 아로니아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블랙초크베리(Black Chokeberry)’
 , 또는 유럽의 왕족들이 먹었다고 해 ‘킹스베리’라고도 한다.

○ 꽃과 과일에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약용열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맛과 색, 향이 좋아 잼, 와인, 주스, 차 등으로 가공돼 판매되고 있다.

○ 한 대표는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농사꾼으로 변모를 시도하게 됐다.

○ 한 대표가 농사를 시작한 것은 평소 자연을 벗 삼아 살기를 원했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 그는 농업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최근 건강식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등 베리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정보를 검색하다가 아로니아를 알게 됐다.

○ 아로니아로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2012년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해 아로니아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 농사에 대한 경험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었던 한 대표에게 아로니아 농사는 도전이고 모험이었다.
- 한 대표는 "아로니아가 뛰어난 효능에 비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목이다 보니 재배법이 확립돼 있지 않았고, 재배농가가 많지 않아 정보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 또 대부분의 과수와 마찬가지로 경제수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5년을 기다려야 했기에 자본회전이 느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생과는 수확 후 3~4일이 지나면 급속 냉동을 통해 산화·변질을 방지해야 하는데, 첫 수확 후 부주의하게 보관해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부족한 정보로 처음 도전한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한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아로니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남농업기술원과 장성군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를 찾아 재배법을 익혔다.
- 여기에다 건강식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재배법도 실천에 옮겼다.
- 비록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매주 2~3회 제초매트와 승용 예초기를 활용해 풀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병해충 방제도 친환경 농자재만 실시해 2013년에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 한 대표는 아로니아를 재배하게 되면서 단순한 생과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했다.

- 그러나 이미 시중에 원액, 파우더, 식초, 잼, 잎차, 액상차, 효소 등 많은 아로니아 제품이 나와 있었고, 매스컴을 통해 건강식품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 한 대표는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2014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에 '아로니아 식초 개발·상품화'란 사업계획을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 대표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프로젝트를 통해 '홍초' 고객인 젊은 여성들과 향암, 아토피 등으로 건강 보조식품을 찾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 1ha의 밭에서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인증을 받은 아로니아 열매로 직접 가공하고 발효시켜 기존 식초보다 산도가 높은 프리미엄급 아로니아 식초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 또 프리미엄급 홍초라는 의미의 '아로초'라는 브랜드도 개발하고 건강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에 맞게 고급스런 디자인과 용기도 개발했다.
- 이렇게 개발한 '아로초'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건강식품·친환경 식품에 관심이 높은 고객이 많은 생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한 대표는 앞으로 아로니아를 활용한 잼, 액상차, 건조과일 등 추가상품을 개발하고, 희석하지 않고 바로 마실 수 있는(Ready to eat) 음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 또 브랜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품질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가공 제품을 세트화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특히 단순한 식품개발 보다는 체험학습으로 연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커뮤니티를 통한 농산물의 신뢰도와 인지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 대표는 “지금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틈새 소득작목으로 규모화해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영암 석사 ‘귀농 청년’ 가능성 주스 생산 화제

- 김스팜 김태연씨, 전남농기원 지원으로 부농의 꿈 -

- 전남 영암에서 기능성 과채주스 산업으로 부농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젊은 청년농부가 화제다.
- 주인공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화된 기능성 과채주스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영암 (주)김스팜 김태연(37) 대표.
- 20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뒤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농업 컨설팅 회사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나 15년간 계획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2013년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부모가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고향 영암에 터를 잡았다.
- 그는 2013년 김스팜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부모님이 생산한 배, 단감, 대봉감 판매, 유통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가공 공장을 신축, 과채주스를 생산하고 있다.
- 다섯 살 쌍둥이 아빠이기도 한 김 대표가 과채주스를 생산하게

된 동기는 남다르다. 쌍둥이 자녀 중 아들이 담도폐쇄증이라는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보존제나 화학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과채주스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과채류를 이용,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채주스를 생산하게 됐다.

- 김스팜에서 생산된 과채주스는 기존의 증탕가열 방식이 아닌 생과채 100%를 착즙, 제조하기 때문에 주스색이 맑고 투명하며, 향이 진하다.
- 그는 올해 기능성이 뛰어난 강황을 배와 혼합해 강황의 쓴맛은 줄이고 기능성을 높인 ‘강황배주스’와 친환경 감을 이용한 천연발효음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 김 대표는 “올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직거래 위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과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 소비자들을 농장으로 초청해 즐기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신청

- 신청기간 : 7. 22. ~ 8. 7.(15일간)
- 신청대상 : 벣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조사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
- 사업량/사업비 : 17천롤/1,667백만원(기금 500, 자담 1,167)
- 지원단가 : 롤당 93천원(보조 30, 자담 63)
- 지원내용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벣짚·보리짚 제조용)
- 공급기관 : 농·축협(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비닐 인수)

◆ '15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신청 접수

- 기 간 : '15. 7. 23. ~ 8. 27.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품종 : 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등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 : 9. 11. ~ 10. 10.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주간
44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